

7만 예비역 장병,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

=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계급별 대표가 메신저로 나서 =

“확고한 안보태세와 강한 추진력으로
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
유능한 평화안보대통령 이재명 후보 지지”

○ 예비역 장병 7만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.

- 지지 결의대회는 3월 2일(수)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299명(방역지침 준수)의 예비역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, 독립유공자 후손, 참전용사, 전 해군참모총장(부석중)을 비롯한 계급별 대표, 예비역 출신 문화예술인 등이 지지연설자로 나선다.
- 이번 지지결의대회는 정치인, 고위장군 출신, 저명인사가 주도하는 보수층의 지지 선언과 달리 국방 지킴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외침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.
- * 지지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 및 각 위원회, 월남참전전우회, 의열단, 병장전우회 등 23개 국방안보 단체가 참여

○ 병과 부사관, 장군에 이르기까지 각 계급을 망라한 예비역 장병 수만명이 뜻을 합쳐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에 나선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.

- 특히, 최일선 근무 경험으로 국방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비역 장병들이 이재명 후보의 국방안보 비전과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.
- 아울러, 군 복무를 통해 평화안보가 경제위기 극복의 필수조건임을 체험한 예비역 장병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막판

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이재명 후보는 이종석 평화변영위원장이 대독한 감사서신을 통해, △ 지지해주시는 7만 예비역 장병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역 장병 여러분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△ 든든한 안보대통령, 평화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하고 △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 자주 국방을 실현하여 그 어떤 외세도 한반도를 넘볼 수 없는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.

○ 지지연설에는 △ 독립유공자 후손 (김용만 백범 증손자, 예비역 공군중위/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, 예비역 육군병장) △ 참전용사(송춘모, 월남전 청룡부대, 예비역 해병대 병장) △ 병 대표(예비역 병장 정현우) △ 현역병 어머니 대표(안선미) △ 장교대표(예비역 소령 전미선) △ 장군대표(부석중, 예비역 대장, 전 해군참모총장) △ 예비역 문화예술인 등이 나선다

- 이들은 △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스마트하게 안보위기도 돌파할 역량을 갖춘 국군통수권자가 될 것을 확신하고 △ 이재명 후보의 ‘싸울 필요 자체를 줄이는 평화안보 비전에 공감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

- 또한, △ 대한민국 국군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무기와 효율적인 군구조로 무장한 스마트 강군으로 이끌 지도자 △ 북핵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대결시대를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 지도자 △ 유능하되 교만하지 않고, 신중하되 우유부단하지 않으며, 과감하되 경솔하지 않은 지도자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.

- 특히,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예비역 공군중위(35세)는 “일본 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 진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”면서 윤 후보의 망언 철회 및 민족과 역사 앞에 사죄를 요구할 예정이다.

- 부석중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지지연설자들은 “미래전 양상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과 한미동맹 고도화” 등 이재명 후보의 국방안보 공약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.

○ 김운용 초대 지상군 작전사령관(예비역 대장)과 이정민 예비역 해군 병장의 낭독으로 아래 요지의 <7만 예비역 장병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>이 채택될 예정이다.

- 7만 예비역 장병들은 △ 안보불안 조장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이재명 후보의 평화번영 정책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고 △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을 겸비한 이재명 후보만이 진정한 안보 대통령임을 확인하였으며 △ 이재명 후보의 국방안보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. (끝)